

매주 토요일 조선팝 매력에 퐁당~

전주시, 7월 30일까지 '조선팝 상설공연' 풍패지관·기지제 수변공원 일대서 진행

소리의 고장 전주의 주말이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의 열기로 가득 채워진다.

전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야외 거리공연 형태의 '2022 전주 조선팝 상설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조선팝 상설공연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발맞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조선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지역 조선팝 예술가들에게는 공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설공연에는 지난 5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조선팝 예술가 총 10팀이 참여해 매주 3팀씩 각각의 테마로 공연을 펼치게 된다. 지난 11일 진행된 첫날 공연에는 △국악에 에트 △문화포럼 나니네 △이희정 밴드가 참여해 주말을 맞아 풍패지관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오는 18일에는 △코로나위드소리 △이상욱 밴드 △해화, 이외 △퓨전 국악밴드 JJP △삼룡도 국악 선율모리 △모던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악셀의 색다른 조선팝 공연이 예정돼있다. 조선팝 상설공연은 풍패지관(전주객사)에서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소리의 고장 전주의 주말이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의 열기로 가득 채워진다.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는 풍패지관 공연이 끝나면 기지제 수변공원 야외무대로 자리를 옮겨 조선팝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조선팝 상설공연으로 무르익은 분위기를 더 띄워 오는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팝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팝을 홍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 제작에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등 전주를 조선팝 성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조선팝 상설공연은 유튜브 '조선팝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도 공연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장소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다. 공연 시간 이후에도 '조선팝TV'를 통해 공연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최근 MZ세대 개별관광객 유치에 한해 하나투어와 함께 출시한 여행상품 '전주풀파티'가 큰 인기를 끌었다.

여행업계와 손잡은 이색 여행상품 인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하나투어와 '전주풀파티' 출시

전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업체와 손잡고 관광객 유치를 나섰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최근 MZ세대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나투어와 함께 출시한 여행상품 '전주풀파티'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풀파티에는 지난달 선착순 판매를 통해 예약한 50여 개 팀이 참가해 전주한옥마을 전방이 돋보이는 라한호텔 인피니피플에서 풀파티를 즐기며 DJ KOO(구준엽)의 디제잉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묘미점 여유로운 '호캉스'를 만끽했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촬영지와 연계한 여행상품 '갓다 보면 보이는 그대 그정면 in 전주'를 지난 4월에 출시하는 등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국내여행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 행사가 참여한 한 관광객은 "한옥마을 전망이 보이는 인피니피플에서 디제잉 공연을 즐기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됐다"면서 "장기간 코로나로 움츠려 있었던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나투어 온라인플랫폼(하나투어닷컴, 모바일앱) 통해 한시적으로 기획된 이 여행상품은 풀파티와 디제잉 공연이 결합함으로써 이색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다.

여행상품을 구입한 이용객들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DJ KOO 디제잉 공연 입장권, 전통시장 사용 온누리 상품권이 제공됐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7월부터 국내여행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다"면서 "전주에서의 색다른 관광콘텐츠를 제공해 MZ세대 여행객 뿐만 아니라 타깃층을 넓혀나가는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동물복지 구현

전주시, 효자주공아파트 3단지서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전주시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속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효자주공아파트 3단지 일대에서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권역별 TNR 데이)'을 운영했다.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은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거나 길고양이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는 향후 길고양이 서식과 생존에 위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일시적·집중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해 개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곳이다.

시는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과 울음소리, 배변 활동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길고양이 TNR 사업의 목표인 개체 수 조절 등을 위해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전주시 길고양이 보호 협회와 유기동물 보호소의 협조를 받아 서노송예술촌 인근에서 올해 첫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바 있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가 곧 사람복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된 치매조기검진 재개

전주시치매안심센터, 사업 재개·기존 연령 제한도 없애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전주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재개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재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기존 만 60세 이상으로 한정됐던 검진 대상의 연령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60세 이상 치매 미진단자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치매 조기검진 협약 의료기관 37개소를 방문하면 1년에 1회 무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의 경우 전주시치매안심센터 방문하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집중검진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지난해 검사결과 인지저하자에 해당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강

화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치매 예방교실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치매치료관리비 및 도움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예방의 첫 걸음은 치매조기검진이며,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 조기에 치매를 발견, 치료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운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 치매안심센터(063-281-6302~63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치매조기검진 협약 의료기관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입주기업 추가 모집

26일까지 새활용콘텐츠 생산·소비 활성화 위해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버려지는 폐기물에 디자인과 창조적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다시봄에는 현재 새활용 분야 관련 5개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은 6개의 입주공간 중 비어 있는 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새활용 콘텐츠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및 입주팀과 협업 도모가 가능한 자 △신청 기준 주민등록상 또는 주소지 주소가 전주에 있는 자 등이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전자메일(jucc21@naver.com)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된 기업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입주공간뿐만 아니라 회의실, 야외테라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시봄 협력사업 참여와 입주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중남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새활용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여 전주시 새활용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양영환 의원



김윤철 의원



이남숙 의원



김동현 의원

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공무원 희생만 강요하는 선거사무업무 개선 시급"
- 김윤철 의원 "전주한옥마을 일대 공중화장실 확충해야"
- 이남숙 의원 "의회 제정 조례 시행규칙 신속 점검해야"
- 김동현 의원 "민간위탁 평가 내실 기해야"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전체 사무원은 1783명 중 전주 공무원은 41.8%에 해당하는 745명이며 국가공무원은 5명(0.3%), 전북도청 30명(1.7%), 교육청 127명(7.1%), 우정청 32명(1.8%), 공공기관 42명(2.4%), 일반인 802명(45%)"이라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은 "이 수치를 보면 대선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 위주로 투표 사무원을 동원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과중한 선거업무로 사방한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철(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의원은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화장실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이용할 수 없어 실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웨딩거리, 객리단길, 동문 거리, 서노송예술촌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권역에 공중화장실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 회복과 더불어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전주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들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확충 및 정비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고 제안했다.

이남숙(동서하·서서하동, 평화·2동) 의원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규칙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기간 중 약 80여 회의 시행규칙 제·개정 및 폐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들에 대한 지원 수준, 대상의 범위, 선정기준 등이 의회의 동의와 검증 없이 단체장에 의해 임의로 결정돼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의원은 "민간위탁 평가가 시행된 만 7년이 됐지만 지금은 과연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의 기관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인자 평가를 위한 평가인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가에 평가를 더하는 과도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의 중간을 점검하고 끝에 한 번 점검함으로써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과중한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